




결실의 계절, 학부모님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을 잇드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장애이해-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올바른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람아’, ‘인간아’ 하고 부르지 않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2. 장애인을 보고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나의 호기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해 주세요.
3.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보고 도와줍니다.
4. 대화할 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1968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 마크'

다소 뻣뻣해 보이는 팔과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

이 장애인 마크에 문제를 느낀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은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고안하였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몸체



스스로 휠체어를 있는
힘껏 잡으려는 팔



스스로의 의자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게 설계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위아래로 쉽게 내리는 레버 문고리



유아차, 휠체어 진입이 쉬운 경사로



높낮이가 다른 지하철 손잡이



손쉽게 뺄 수 있는 플러그

2022. 10. 5.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